

#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變化와 受容

裴 鐘 根

(東國大 教授)

## I. 大學이 받는 挑戰—學生文化的 變化

學校는 몇 십년이 가도 變하지 않으나 學生은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

大學의 學生文化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變한다. 요즘의 學生文化를 살펴보면 첫째, 말을 잘 듣는 學生이 과거에 비하여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전에는 교수의 말이라면 그것이 옳건 그르건 따르고 교수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것이 學生들의 태도였으나 요즘의 학생은 잘못이 있어도 뺨뺨이 고개를 들고 自己主張을 한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척하다가 하지 않고 놀려대기까지 한다.

學生들은 공부가 그들의 本分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弱해지고 오히려 二次學習 다시 말하면 娛樂이나 社交나 운동경기에 대하여 더 關心이 높다. 英語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나 팝송에 대하여는 대단한 關心을 보인다. 또한 야구코치의 뺨을 칠 程度로 野球의 作戰이나 解說을 잘하며 學校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알기도 한다. 공부할 때도 음악을 듣고 공부해야 잘 되며 옷이나 머리모양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學生들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學生들은 아는 것은 많으나 그 깊이는 알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名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일반 교양지식이나 科學知識도 대단하다. 그러

나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떻게 어느나가 문제이다. 예를들면 世界名作은 책을 밤새워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映畫나 T.V. 심지어는 만화를 통하여 안다. 이렇게 알게된 知識은 作品의 즐거리만을 아는 것이지 그 作品의 主題나 思想을 아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해서 얻은 知識은 넓으나 결국 알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생각에 무게가 없고 行動은 輕率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大學時節은 苦悶의 時節이다. 고민이 많고 일부러 고민을 만들어 고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苦悶은 人間의 깊은 苦惱라기보다는 實利的인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學生文化의 特徵이다. 취직에 대한 苦悶과 職業선택의 苦悶이 많고, 人間에 대한 苦悶, 宗教에 대한 懷疑, 善과 惡의 區別에 대한 苦悶, 아름다움의 實體에 대한 疑心등의 苦悶은 줄어들고 있다.

過去에는 먹고 자고 입는데 궁색이 없는 비교적 부유층의 자녀가 大學教育을 받았다. 그들은 大學을 졸업한 후 구태여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하여 大學에 다닌 것이 아니라 부유층은 하나의 文化的 裝飾으로서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학교에 다녀야 하겠다는 學生이 全體學生들 중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學生文化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과 어떻게 해서라도 잘되고 보겠다는 欲望이

강하다. 이러한 欲望과 의욕은 學生文化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學校에서 人間教育이나 人格教育을 내세워도 그들에게는 크게 感化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教授가 원망스럽고 또 우습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學生文化의 경향은 學生의 內的인 競爭을 激化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學生文化를 兩分시키고 있으니 하나는 잘 될 可能性이 있는 學生群과 또 다른 하나는 잘 될 可能性이 없는 學生群이다.

## II. 變化와 挑戰에 대한 消極的 反應

이와같은 學生文化의 變化는 既存 學校體制의 變化를 要求하는 하나의 큰 挑戰의 힘이 된다. 學生文化의 이러한 變化의 경향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것은 社會와 時代의 變化의 產物이라고 본다면 學校體制는 어떠한 形態이든 이러한 學生文化의 變化를 收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學生文化의 이러한 變化는 오랫동안 傳統的으로 내려온 大學이 人格 도야의 殿堂이라는 理念이나 教育目的에 挑戰하고 있으며 그 變化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문제의 하나는 과연 學生이 바라지도, 따르지도 않는 教育理念이나 目的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것이 教育의 實體나 하는 것이다. 사실 생각하면 教育이란 概念은 너무나 오랫동안 抽象的인 觀念論의 祭壇에 모셔온 것 같으며 教育의 效果를 물을 때 教育은 精神的인 生産이기 때문에 그 效果를 묻는 것 그 自體가 教育의 本質을 모르는 것이라고 一笑해 버렸다. 그러나 教育에 대하여 國家나 家庭에서 너무나 많은 財貨와 資源이 投入되기 때문에 그 效果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時代的 要請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教育의 目的이나 理念은 언제까지 觀念의 祭壇에 모셔둘 수 없고, 이러한 觀念的 理念이나 目的을 具體的으로 行動化할 수 있는 行動的 目的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 行動的 目的을 實踐할 수 있는 實踐計劃이 마련될 必要가 있다. 아울러 오늘날은 知識社會이며 앞으로 知識경쟁이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必要한 知識의

量은 더욱 많아진다. 學校에서 배우고 얻은 知識의 量은 과거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으나 社會가 갖는 知識量의 增加 速度는 大學에서 배우는 知識量의 增加速度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大學에서 배우는 知識이 社會가 갖고 있는 知識에 比하여 그 比率이 낮아진다.

최근 外國에서는 速聽法을 익히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녹음테이프를 正常 速度보다 빨리 돌려 듣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量의 知識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量의 知識을 빨리 얻어야 하는 時代에 學生이 살고, 또 학생이 그것을 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學校教育은 이에 대한 어떤 措置나 準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學校에 있어서의 教育方法도 學生의 바램이나 時代의 變遷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과는 먼 것으로 행해지고 있다. 速讀法의 必要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며 빨리 많은 것을 배우는 다른 方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學生들은 보다 깊은 지식을 얻고자 하여도 이것을 實行할 수 있는 授業與件이나 時間與件이 마련되지 못한다. 學生問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나 이것을 해결하는 學校組織과 運營이 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大學은 大學이 學問의 象牙塔이며 社會的 指導者를 만드는 機關이라는 구실 밑에서 그 實際的 教育經營에 있어서 虛弱性과 나태성을 지니고 있다. 大學總長은 教育經營의 責任者라기 보다 象徵的인 存在로 있다. 學生文化의 變化와 社會의 발전에 對應하기 위한 計劃的인 改善은 不振하다. 大學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支援體制인 行·財政組織과 運營은 거의 不變이며 이것은 곧 大學의 生動性을 混濁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 III. 大學經營觀의 合理性 缺如

지금까지 우리는 學生文化의 경향을 들었고 學校體制의 實情을 살폈으며 이 兩者간에 乖離가 있고 學校는 學生文化나 時代變化에 맞지 않게 행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學校體制의

學生文化와의 不調이나 社會 要求와의 不協和音이 곧 學生教育에 있어서 教育經營의 必要를 提起시키는 契機가 되는 것이다.

흔히 오늘날의 企業은 專門 經營者의 손에 의하여 左右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學校는 資産의 規模에 있어서나 收容人員에 있어서나 一般會社나 企業보다 크고, 또 만들어 내는 Output에 있어서是一般企業의 Output(商品)보다 社會的 價値가 큰 知識과 技術(그리고 人格)을 生産함에도 不拘하고 大學教育은 教育經營 專門家의 손에 左右된다는 인식이 오늘까지 弱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教育經營이란 教育目的이나 目標를 效果의으로 달성하기 위한 組織的인 努力의 過程 또는 體制이다. 따라서 大學을 經營한다는 것은 總長이나 學長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教授와 行政職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는 것이기는 하나 總長은 그힘을 합하도록 組織化하는 일을 하며 그 組織化의 일이 大學經營의 중요한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大學은 大學經營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學校經營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크다.

大學의 教育經營에 있어서 그릇된 생각의 하나는 教育을 하기 위해서는 돈(用役과 財貨)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돈만 充分하면 모든 教育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大學의 長, 財政擔當者 그리고 教授 들에게까지도 크게 퍼져 있다. 教育은 돈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시설도 좋아지고 實驗도 할 수 있고 敎職員 給與도 좋아지고 잘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教育에 대하여 充分한 돈과 資源이 있는 경우란 그리 쉽지가 않다. 문제는 돈이 不足하고, 資源이 부족하고 教授나 時間이 不足하기 때문에 教育經營의 重要性이 強調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모든것이 充分할 때 學校를 經營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둘째번의 그릇된 생각은 大學教育은 돈(用役과 財貨) 없이도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教育 傳統이라고 볼 수 있다. 教授는 돈을 알면 안되고 돈에 깨끗해야 하며 돈 이야기를 하면 더러운 사

람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大學改善의 實質的인 與件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르고 大學을 경영하는 것이 옳다는 타성이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大學經營에서 가지는 세째번의 그릇된 생각은 合理性보다 合法性에 억매이는 경향이다. 이것은 大學의 발전이나 教育 발전에 豫算과 行政行爲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이것을 合理的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법이나 命令대로 따라하고, 教育이 어떻게 되었든, 大學이 어떻게 되든, 教授나 學生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 豫算의 編成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면서, 그것을 合理的으로 사용하는 方法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執行한다. 그 反對로 合理的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法的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合法的으로 집행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 없지도 않다. 이와같은 大學經營에 있어서의 合理性 輕視와 合法性 固守는 오늘날 大學으로 하여금 健實한 大學經營을 할 수 있는 餘地를 마련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大學經營의 不在狀態를 면치 못하고, 나아가 大學教育의 發展을 遲延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네째번의 그릇된 생각은 大學의 長이나 教授나 行·財政擔當者의 教育經營觀이 未來志向의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保守的이라는 경향이다. 總長과 教授는 學生의 將來나 社會의 將來도 責任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變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教育觀이나 大學經營觀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大學의 過去志向性 또는 未來志向性的의 缺如는 授業이나 學校環境이 몇십년 전과 같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과거의 經驗만 중히 여기고 새로운 理論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우리의 大學은 未來에 對應하는 教育體制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는 狀態에서 未來를 向하여 教育하고 있는 듯한 虛勢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大學에 있어서 教育經營學體制를 確立한다는 必要는 곧 不足한 資源을 가지고 大學教育의 效率

性和生産性を合理的으로 높인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作業은 말과 같이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大學이 그러한 教育經營을 充分히 받아들일 만한 體制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V. 大學社會의 體制的 特徵

여기에서 다른 機關과 比較하여 大學社會의 體制的 特徵을 살펴보자. 大學의 첫번째 特徵은 教育目的이나 目標이 漠然하며 不確實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企業生産에서는 input에 따르는 output가 확실하나 大學에서는 그렇지 않다. 둘째, 企業生産에 있어서는 input의 結合이 간단하다. 그러나 教育에 있어서는 input의 結合이 너무 복잡하다. 끝으로, 企業生産에 있어서는 어떤 input가 output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쉽게 알 수 있으나, 教育에 있어서는 그 영향을 알기 어렵다.

大學의 두번째 特徵은 大學이 專門知識의 덩어리이면서도 大學經營은 非專門人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다는 것이다. 大學의 長은 經營能力보다 人格이나 德望이 더 요구되고 行·財政의 責任者는 그 分野에 訓練과 知識이 약한 教授에 의하여 行해지고 있다.

세째는, 大學이 새로운 經營技術에 대하여 둔할 뿐 아니라 拒絕하는 분위기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大學이 社會에 대한 奉仕를 어떻게 하고 또 社會와 學生이 大學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따라서 새로운 能動的인 改革 의지도 약하다.

네째로 大學은 共同意識이 약한 대신 部分意識(fragment)이 強하다. 이것은 教授는 教授대로, 行政管理職은 그들대로, 그리고 學生은 學生대로의 共同意識은 강하나 大學全體로서의 의식은 弱하며 때로는 이와 같은 部分意識의 갈등 때문에 大學發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大學의 官僚體制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大學이 正當한 意思疏通이 없이 行·財政이 執行되고 行·財政擔當者의 移動이 限定이 되면서 行政의 助言은 干涉으로 받아들이는 非專門人에 의한 權威的 行政體制를 말한다.

이와같은 大學의 特徵은 大學을 改善하고 發展시키기에는 다른 機關에 比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改善하느냐가 하나의 우리의 重要한 課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

#### V. 結 言

教育이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教育이 만들어내는 그 무언은 우리가 國際競爭時代에 살 수 있는 知識과 技術과 그리고 人間性(價値)이며 이것은 곧 大學行政家의 教育經營觀과 教育經營能力과 教育經營技術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오늘의 社會는 너무 빨리 變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學生의 欲求와 文化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大學體制는 이것을 外面하고 한가하게 觀念의 祭壇에서 過去의 經驗에 따르는 經營으로 營爲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생각할 問題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돈(用役과 財貨)만 있으면 教育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不足한 돈으로 最大의 知識과 技術과 價値를 生産하는 教育經營方法을 찾아야 하겠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教育이 된다는 궁색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돈을 써야 教育의 效果가 올라가는가를 생각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教育이 어떻게 되든 合法이라는 틀에 맞게만 大學을 經營하는 消極的이고 安逸한 行動과 態度에서 벗어나 보다 合理的인 教育經營을 하는 勇氣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過去의 향수 속에서 꿈을 꾸지 말고 우리 社會와 學生의 將來를 그리는 經營을 해야 하겠다.

이제 우리 社會는 德望이 높고 經綸이 많은 것으로만 大學의 責任者나 行政家의 資格이 充分하다고 생각되는 時代는 지났으며 德望과 經綸과 그리고 教育經營理論과 實踐力을 갖는 것을 必要로 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大學 教育行政家의 教育經營에 대한 새로운 觀의 確立이 大學은 社會發展의 產物이라는 口號의인 主張에 앞서서 더욱 切實히 要求되는 것이다. \*